

전북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미래를 위한 탁월한선택, 학부모와 만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4일·13일마련... 직업계고인식개선·신입생 충원률 확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부모 대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 2022 학부모와 만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를 오는 6일과 13일 오후 7~9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과 8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및

진공 특화된 교육과정을 안내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6일은 마이스터고 설명회가 진행된다. 군산기계공업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전북기계공업고 등 4개 마이스터고에 대한 학과 소개와 특성화 교육과정 등이 소개된다. 이어 13일에는 특성화고 설명회로, 계열별·전공별 특징 및 졸업후 진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및 학부모 강연, 학교별·계열별 개별 상담 등도 준비해 설명회를 찾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신청은 1차는 4일까지, 2차는 8일까지 네이버폼(<http://naver.me/sYQIR4yc>)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며, 신청순으로 선정 후 공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다”면서 “맞춤형 직업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민운동 교육청소년본부 출범식.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신설 필요”

천호성 교수, 전국 기본소득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 임명

전국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천호성 전북대교육연구소장을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 유형 국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현재 17개 시도에 지역본부와 두고 각 지방별 본부를 위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시민운동 단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를 받쳐주는 중소기업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소득의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성찰하고 보급 확산하는 공공성의 장을 마련했다. 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교육청소년본부는 기본소득 논의 중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 학생·청소년 수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복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또 상임대표로 임명된 천호성 교수는 “영유아수당, 기본소득, 노인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는 산발적이다”면서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학생·청소년수당을 신설해 단순히 복지자원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경제교육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에서는 출범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군산대 정균승 교수의 ‘기본소득 자세히 알기’, 천호성 교수의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박은미 학부모의 ‘교육복지와 돌봄’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토론회도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또한 “올해 4월부터 고성능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산업용 탄소섬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 ‘소담소담’ 진행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모임은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 ‘소담소담(小談笑談)’을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전주문화재단 윤지용 강사가 ‘실크로드 지리와 역사’, ‘실크로드의 경로 1, 2’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된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소담소담(小談笑談)’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 문의 및 안내는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 3207), 전주대학도 HK+연구단 홈페이지(www.jjac.kr/h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방위사업청 ‘맞손’

항공우주산업 소재분야 과제 발굴·정보 교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9월30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고성능 탄소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에는 ▲간·군 공동 활동이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소재분야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최신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 및 산업분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강은호 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 가속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산업 소재분야를 비롯해 관련분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소섬유의 국내 기술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자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거점대학이다”며 “향후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전북도, 전주시와 협력해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인력을 확충,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고성능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산업용 탄소섬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글로벌 맞춤형 실용인재 양성 ‘혼신’

해외연계 현장실습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개강·내달 11일까지 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 교육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글로벌 맞춤형 실용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학 LINC+사업단과 대학일자리본부는 최근 2021 학년도 2학기 글로벌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연계 현장실습 역량강화 교육(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 개강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석대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까지 5주 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어(OPIc 초급 자격증반)와 일본어(JLPT/JPT 입문반·JLPT/JPT N5-N4 실전반·JLPT/JPT N3-N1 실전반), 중국어(HSK 초·중·고급 자격증반) 등 정기시험을 대비한 수준별 집중교육 형태로 실시된다. 또한 교육은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표현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과 해외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능력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방구석 그림책 전시회 운영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태)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그림책 원화 전시·방구석 그림책 전시회 On-그림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다. 회관 홈페이지(독서문화진흥)온라인원화전시)를 통해 매달 한 권의 도서를 전시한다. 10월에는 ‘눈보라’, 11월에는 ‘개미 요정의 눈물’, 12월에는 ‘차표는 어디로 날아갔을까?’를 감상할 수 있다. 10월 전시 도서는 매력적인 이야기꾼 강경수 작가의 ‘눈보라’다. 이는 북극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북극곰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로 환경 문제와 더불어 풍자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최준혁 선수, 전국씨름대회서 동메달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35회 전국시·도 대학장사씨름대회(2차) 대학부 개인전 경장급(-75kg 이하)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준혁 선수(스포츠경호학과 4년)가 3위를 했다. 최준혁 선수 32강 용인대 최은석, 16강 용인대 황민혁, 8강 같은 팀인 호원대 손유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준결승에서 영남대 이현서 선수와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운영진 감독은 “코로나19로 전국씨름대회 잠정연기 및 취소로 학생들 컨디션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대회 준비를 한 최준혁 학생에게도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높을 고창

30년 고창군 숙원, 서해안 관광의 랜드마크

높을 대교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